

Style **1** 조선일보

FEBRUARY 2019
vol.184

©T&CO. 2019



True
Believe In Love
Introducing the Tiffany True Ring

TIFFANY & Co.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Zip Antique Ludo necklace
transformable into a bracelet,
rubies and diamonds.





표지의 티파니 트루 다이아몬드 웨딩 링은 반지를 착용한 이의 사선에서 볼 때 접착된 T 형태를 띠는 디테일을 강조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게다가 장인이 손으로 직접 다이아몬드를 깎고 다듬어 완성한 카팅이 돋보이는 데 스톤 하나가 최상의 광채를 발산하도록 빛과 명암을 극대화했다. 표지 속 제품은 플래티넘 밴드에 트루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이다. 문의 02-547-9488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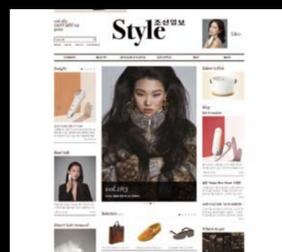
Style 조선일보

Issue.184 February 2019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민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분해·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티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동성찬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혁신과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SCAN WITH THE FENDI APP TO SEE EXCLUSIVE CONTENT

- 12 **JUSTIN QUEK** 출장으로, 관광으로 많은 이가 찾고 있는 싱가포르의 명물 마리나 베이 샌즈(Marina Bay Sands). 이 복합 리조트가 생겼을 때 미식업계에서 화제가 된 인물이 있다. 당시 마리나 베이 샌즈 57층에 자리한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자리를 거머쥔 싱가포르 출신의 셰프 저스틴 퀘크(Justin Quek). 세계적인 정·재계 명사들의 만찬을 진두지휘할 정도로 명성 높은 셰프가 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14 **EAT, PRAY, LOVE** 사랑을 약속하며 나누는 반지, 매일매일 시간을 확인할 때마다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계, 손백의 웨딩드레스와 환상의 짝꿍을 이룰 귀고리 등 특별한 웨딩 주얼리와 워치를 모았다. 곧 세상에 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마주하게 될 커플,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 22 **MORE PRECIOUS** 결혼을 앞두고 광생을 함께 자넨 새 가족에게 보내는 첫 선물, 예단. 전통적 예단으로 중요하게 손꼽는 이불과 반상기, 은수저, 예단보를 더욱 기품 있고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보자기 포장법을 소개한다.
- 23 **THE FINEST HERITAGE** 보테가 베네타가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함께 도쿄 간자의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기념한 2019 프리폴 컬렉션을 공개했다.
- 24 **MODERN MUSE** 심들한 실루엣과 더욱 섬세해진 디테일의 매력적인 2019년 웨딩드레스 컬렉션.
- 32 **BELIEVE IN TRUE LOVE** 변치 않는 사랑과 안연의 대명사 티파니가 보다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한 컬렉션을 선보인다. 눈부신 빛과 정제된 아름다움을 동시에 지닌 '티파니 트루 다이아몬드 웨딩 링'.
- 33 **MODERN APPEAL** 최고 품질의 진주에 젊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더했다. 실루엣과 컬러 그리고 소재에 담은 균형과 대담은 타사 주얼리의 키워드. 마치 철저하게 계산되어 만들어진,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건축물 같다.
- 34 **THE SCENT OF SPRING** 스와로브스키의 새 유즈가 공개되었다. 2019년 봄, 뷰티인더 앞에 선 신미가 제안하는 가래, 샬름, 로맨스 그리고 자신감을 담은 스와로브스키 컬렉션.
- 36 **PERFECT RADIANCE** 피부 본연의 광채를 살리고, 파뽀결을 매끄럽게 관리하는 사벨 '수블리마지 레쌍스 루미에르'는 피부 결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맑고 균일한 피부 톤으로 가꾸주는 진보한 화이트닝 스킨케어 제품을 선사한다.
- 37 **SECRET OF YOUTH**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해온 시슬리 연구소가 소개하는 '시슬리아 랭데그랄 앙티 아쥬 언티 링클 컨센트레이티드 세럼'. 어린 피부로 되돌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만든다.
- 38 **BEAUTIFUL SOLUTION** 그날만큼은 맑고 깨끗한 피부이고 싶을 듯, 예비 신부와 약가 어머니의 탄력 있고 아름다운 동안 피부를 책임져 줄 스페셜 뷰티 세트 8.
- 40 **ON THE TABLE** 집에서 보내는 시간에 기쁨을 두는 요즘, 차 한잔을 마시더라도 정성스럽게 테이블을 세팅하고 작은 접시 하나도 허투루 고르지 않는 이들이 많아졌다.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날이나 기념하고 싶은 특별한 날 더욱 빛을 발하는 네 가지 스타일의 테이블웨어.
- 42 **EDITOR'S PICK** 환절기 스킨케어부터 스프링 메이크업 제품까지. 〈스타일 조선일보〉가 추천하는 뷰티 아이템.



FENDI.COM

FENDI

Jewel AGELESS PEARL

충분히 젊어지고 스타일리시해졌다. 기준에 가지고 있는 주얼리와 레어드해 데일리 아이템으로 활용하면 좋을 진주 주얼리.



(왼쪽 유티터 시계 방향)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인클루시브하게 진주를 장식했다. 조세핀 이그레트 컬렉션 링 9백만 원대 **소메**, 다양한 게 파는 아리아 진주의 우아한 빛을 느낄 수 있도록 부드러운 곡선으로 디자인한 나크리아스 네크리스 4천3백만 원대 **타사키**, 옐로 골드와 화이트 다이아몬드, 비로크 당수 진주 3개를 조합한 베타 영주 브레이슬릿 1천1백만 원대 **프루드**, 벨란스 시리즈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직선 비를 변형한 생동감 넘치는 벨란스 노트 링 2백35만 원대 **타사키**, 18K 핑크 골드 장미 옆에 화이트 이코아 진주를 세팅한 피아제 로즈 링 1백70만 원대 **피아제**, 당수 진주 주변으로 18K 핑크 골드와 옐로 골드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가깝고 있는 트라티드 드 가르피에 링 6백50만 원대 **가르피에**, 에디터 **장미윤**

Fashion HOLD ME TIGHT

작지만 실용적이고 아름답다. 웨딩 데이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두루 쓰기 좋은 감각적인 클러치 아이템.



(위부터) 가는 체인 스트랩을 더해 슬더백으로 연출하거나 손에 가볍게 쥐어 들 수 있는 핑크 펠스킨 소재 이브닝 백 가격 미정 **사벨**, 눈부신 글리터 장식과 금장 디테일이 글래머러스한 우드를 풍기는 블랙 클러치 가격 미정 **지미 추**, 오색스와 골드를 세팅한 벨 머리 모양의 클러치가 인상적인 파인톤 클러치 4백70만 원대 **발루니**, 아리아비속 트렁크에서 영감을 얻은 견고한 디자인의 브러쉬 말 백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동그란 형태의 지퍼 포켓으로 재를 준 노트 클러치 3백만 원대 **보티가 베네타**, 에디터 **이혜미**

INSIGHT

편잡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Focus
창고 안 작품들 세상 밖으로... '수정형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창주관

충북 창주시에 현대미술을 조금은 색다르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과거 담배 공장으로 쓰이던 건물을 문화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국립현대미술관 창주관이 바로 그곳이다. 지난해 말 문을 연 이곳은 과천, 덕수궁, 서울에 이은 국립현대미술관의 네 번째 미술관으로 지상 5층에 10개 수장 공간, 15개 보존 과학 공간, 기획 전시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버려지거나 쓰이지 않던 공간을 환골탈태시키는 문화 재생 사례는 이제 흔한 편이지만, 창주관은 국내 최초로 '수정형 미술관'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다는 점에서 색다르다. 21세기형 미술관을 특징짓는 하나의 모델로 여겨지는 수정형 미술관은 전시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창고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작품을 관객과 만나게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큐레이터의 시기에 의해 가려질 수 있는 기존 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람객의 참여를 보다 활발하게 이끌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조각 등 일체적인 작품은 기형형 수장고에 놓이면 활용 가치가 높다. 주로 유럽에서 활발히 시도되고 있는데, 스위스의 샤울라게(Schaulager)와 프랑스의 루브르렌스(Louvre-Lens) 같은 미술관이 기형형 수장고 방식을 택한 미술관으로 꼽힌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 중 약 1천5백여 점이 이미 창주관으로 옮겨졌고, 앞으로 4천 점 이상이 향후 2~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창주 시민은 물론 이 지역을 찾은 이들의 발견을 즐겁게 할 창주관의 사활을 가늠해 김수자, 김을, 강익중 등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 중인 대표 작가 15명의 회화, 조각, 영상 등 소장품을 전시하는 개관 특별전 <별 헤는 밤: 나와 당신의 이야기>가 오는 6월 16일까지 열린다. 에디터 **고성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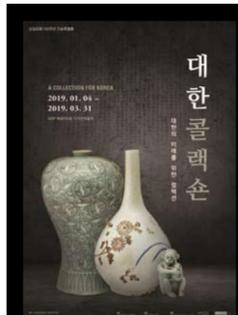
강익중 '상리관상'(1984~2014),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사진: 제임스 국립현대미술관

Beauty SCENT OF LOVE

가장 행복한 하루를 로맨틱한 향기로 기억하게 해줄 워딩 향수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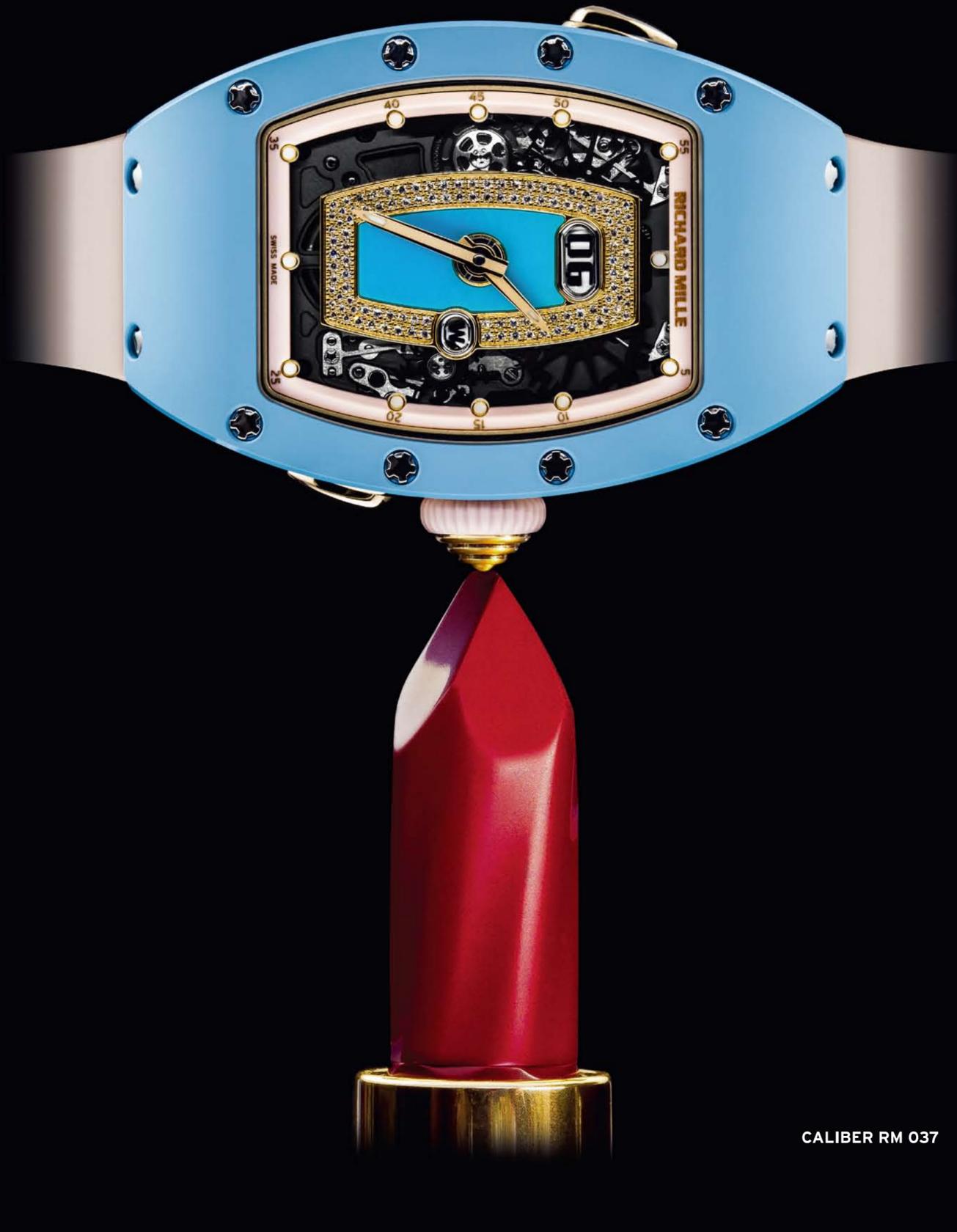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베중 프랑스 카렌트 플루미디티 실베 에디션** 사랑을 고백하는 벨런타인데이 시즌을 맞아 새롭게 출시한 향수로 주니피 베리, 네르베고, 고수세 오일, 머스크 등이 어우러진 우디한 아로마 향이 매력적이다. 70ml 23만 원대. **타파니 오드 퍼플 인텐스** 궁정, 강인함, 출가음, 순수함, 사랑 등 브랜드를 대변하는 키워드를 풍부한 아리아리스 향으로 표현했다. 다이아몬드 단에서 영감을 얻어 이름답게 가장한 유리 보틀 역시 매력적. 70ml 18만 원대. **디올 미스 디올 오드 무알렛** 열정적인 사랑과 활기 넘치는 라이프스타일을 열광하는 여성을 위해 고안한 향수. 무수 다중인 향들의 상성으로 여인 은방 울꽃의 신선한 향기 계 경쾌한 시트러스 향과 로맨틱한 그래스 노트, 제스민 향을 발명했다. 100ml 17만 원대. **프루다 by 사이오안타시셀레스 인듀진 디 프루다 컬렉션 아리아리스 세타** 네뮈리, 삼나무, 베타비 등 다채로운 원료를 사용해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1919년 미우치아 프루다의 조부가 직접 디자인한 브랜드 고유의 클래식한 문양을 적용한 사각 보틀이 돋보인다. 100ml 16만 원대. **조 말론 브라이언트 레이스 컬렉션 피오니 얼 블러쉬 스퀘이드 코랄** 오직 시부를 위해 출시한 제품으로 영국식 결혼식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작인의 향기를 특별한 웨딩 레이스 디자인의 패키지에 담았다. 100ml 19만 원대. **샤넬 샹소 오드 몽드르 오드 바르셀** 기쁨을 뜻하는 샹소(Chance)라는 이름처럼 삶에 새로운 기회와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의미를 지닌 향수. 2002년 처음 선보인 제품을 보다 강렬하고 로맨틱한 느낌으로 재해석했으며 재스민 애플루트의 풍부함과 로즈 에센스의 여성스러움이 조화를 이룬다. 100ml 21만 원대. **버버리 헤(He) 오드 버블** 생기 넘치는 프루티 플로럴 계열의 향수로 레드·다크 베리 노트와 앰버 머스크 향의 조합이 독특하다. 100ml 18만 원대. 에디터 **이혜미**



Exhibition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 대한콜렉션>

일제강점기에 사재를 털어 국보급 문화유산을 지켜낸 김승(金承) 전형필(1906~1962)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삶과 더불어 귀중한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배움터 2층에 자리한 디자인박물관에서 오는 3월 말까지 열리는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 대한콜렉션> 전시다.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이어져 온 동대문 미술관을 앞둔다. 첫 번째 마지막 전시로 고려청자의 대명사인 국보 제68호 '윤화문매병'을 비롯해 국보 6점과 보물 8점 그리고 국사 김정희의 글씨와 경제 정선의 그림 등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전시 공간은 5개로 나누는데, 그 시작은 지난 5년간 DDP에서 펼쳐진 김승 전시를 갈무리함과 동시에 디지털화된 주요 유물 15점을 만날 수 있는 '일리다' 공간이다. 이어서 김승의 교육자적 측면을 볼 수 있는 '전하다' 공간, 윤화문매병의 실물과 그 뒤에 숨겨진 수장 비화를 접할 수 있는 '모드다' 공간, 지금의 명동 한복판에 위치했던 경성 미술극장부를 통해 우리 문화재 수탈의 아픔을 되돌아보고 그로부터 김승이 지켜낸 대표 유물을 살펴보는 '지키다' 공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에 머물던 영국인 변호사 존 개스비의 컬렉션을 일본 도쿄까지 건너가 인수하게 된 이야기와 우아함의 정수를 담은 비주얼 고려청자를 비롯한 대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되찾다' 공간이 있다. 오디오 가이드는 배우 임수정과 방송인 마크 테몬의 재능 기부로 한국어와 영어 버전을 제작했다. 홈페이지 www.ddp.ok.kr 에디터 **고성연**

RICHARD MILLE



RICHARD MILLE BOUTIQUE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29 • 02) 512 1311

www.richardmille.com

© Didier Gourdon

1 보타가네를 따라 흐르는 실루엣이 아름다운 비즈 장식 레이스 드레스 1천3백만원대
인젤드레이 by 아틀리에 쿠, 2 영롱한 자르코크-아와 친 주를 새긴 드림 아아링 1백30만원대 **보타가 베네타**, 3 모노그램 프린트의 골렛트 핏팅 가격 미정 **루이 비통**, 4 심을 하고 단아한 분위기의 핏 플 네크리스 18만원대 **스와로브스키**, 5 화려한 바를 디테일이 눈길을 끄는 브리앙 백 7백10만원대 **엘보**, 6 정교한 새공이 돋보이는 플라워 모티브 헤어핀 1백만원대 **캐번디시 by 아틀리에 쿠**, 7 하트 형태의 비드윈 더 링거 링 3백만원대 **에르메스**, 8 하우스를 상징하는 모노그램 플라워를 장식한 브라스 소재 핏팅 79만원대 **루이 비통**, 9 향기로운 꽃향기와 붉은 과일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샴페인 750ml 10만원대 **모엣&상통**, 10 핑크 메시 소재의 가젤리 야 디테일이 사랑스러운 오픈토 펄프스 1백80만원대 **샤넬**, 11 작은 꽃송이 모양의 크리스탈 바늘이 눈부신 실버 비브 카바 백 가락 미정 **로자비비에**, 12 다채로운 모티브 위에 크리스탈을 총총하게 세팅한 티아라 밴드 2백만원대 **호미브라이덜 by 아틀리에 쿠**, 13 다이아몬드 인테스와 우아한 마더오브빌 다아일이 어우러진 비문젤리 레이디데이 워치 1백35만원대 **미도**, 14 휴대가 용이한 작은 사이즈의 트래블 파우치 케이스 15만원대 **바이베도**, 15 핑크 컬러의 하트 모양 크리스탈을 들어 올리면 'Only for You'라는 낭만적인 메시지가 드러나는 장식품 16만원대 **스와로브스키**.

아틀리에 쿠 02-517-3889 보타가 베네타 02-3438-7682 루이 비통 02-3432-1854 스와로브스키 1661-9060 엘보 02-6905-3709 에르메스 02-546-3643 모엣&상통 02-2188-5100 샤넬 02-543-8700 로자비비에 02-6905-3370 미도 02-3149-9599 바이베도 02-3479-1688

for her Selection

웨딩 데이들 손잡아 기다라는 사랑스러운 신부를 위해 준비한 로맨틱한 셀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www.tasaki.co.kr

TASAKI

BRIDAL



14

1 블랙 버튼으로 포인트를 준 화이트 셔츠 25만원대, 새틴 라펠과 라이닝을 더한 턱시도 세트 1백30만원대, 블랙 보타이 10만원대, 화이트 핑 카라프 80만원대 모두 **보스 맨**, 2 템플 부분에 우븐 레더 소재를 덧댄 신글라스 45만원대 **토즈**, 3 클래식한 사선 스트라이프 넥타이 20만원대 **에르메스**, 4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해 사용하기 편리한 세이빙 레이저 43만원대, 부드럽고 풍부한 거품을 만들어내는 세이빙 브러시 39만원대 모두 **아쿠아 디 파르마**, 5 내부에 두 개의 슬립 포켓을 더한 소가죽 소재 여행 케이스 45만원대 **마크 크로스 by 분다삼**, 6 초파-나무 열매, 베라기모티가 아우라져 따뜻하고 센수얼한 향을 풍기는 페르 데르메스 오일링스 베타베르 50ml 11만원대 **에르메스**, 7 슈 혼(shoe horn)에서 영감을 얻은 재피하는 모양의 레더 네크리스 40만원대 **벨루티**, 8 클래식한 디자인의 블랙 카프 레더 레이스업 슈즈 98만원대 **차차스**, 9 베릴, 램, 콘 등 제품 곳곳에 생텍쥐페리의 소설에서 영감을 얻은 디테일을 더한 풀맨 1백25만원대 **몽블랑**, 10 레드 도트로 로고를 새겨 넣은 강철한 디자인의 벨트 55만원대 **살바토레 페라기모**, 11 스텔링 샴수에 블랙 레카모 장식한 신토드 가르피에 카프스 링크 80만원대 **가르피에**, 12 견고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알루미늄 소재 캐리어, 54, 53x5, 5cm, 1백30만원대 **루미**, 13 64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제공하는 무브먼트 Cal. 888.4를 탑재한 레코드 컬렉션 워치 4백80만원대 **루진**, 14 그레이와 네이비블루 스트라이프 패턴의 실크 보타이 20만원대 **브리오니**.

보스 맨 02-515-4088 토즈 02-3448-8233 에르메스 02-546-3643 아쿠아 디 파르마 02-6905-3568 분다삼 02-2056-1234 벨루티 02-547-1895 차차스 02-3479-1140 몽블랑 1670-4810 살바토레 페라기모 02-3430-7854 가르피에 1566-7277 루미 02-539-8950 루진 02-3149-9532 브리오니 02-3274-6483

for him
Selection

남다른 안목과 취향을 지닌 예비 신랑을 만족시킬 감각적인 웨딩 아이템 제안.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SWAROVSKI

#FollowYourHeart
Shop the new Valentine's Day Collection



싱가포르가 사랑하는 셀러브리티 셰프

Justin Quek

출장으로, 관광으로 많은 이가 찾고 있는 싱가포르의 명물 마리나 베이 샌즈(Marina Bay Sands). 이 복합 리조트가 생겼을 때 미식업계에서 화제가 된 인물이 있다. 당시 마리나 베이 샌즈 57층에 자리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자리를 거머쥔 싱가포르 출신의 셰프 저스틴 퀘크(Justin Quek). 배를 타는 선원으로 시작해 싱가포르 미식계에 한 획을 그은 레스토랑 '레 자미(Les Amis)'를 열었고, 이어 세계적인 정·재계 명사들의 만찬을 진두지휘할 정도로 명성 높은 셰프가 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산스크리트어로 '사자의 도시(Singapura)'라는 뜻을 지닌 동남아시아의 작은 섬나라 싱가포르. 오늘날에는 관광지로도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사실 이 도사국가는 반세기 전만 해도 이런 곳에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의심이 들 만큼 낙후된 곳이었다.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63년 말레이시아 연방의 구성원으로 독립했지만 불과 2년 만에 옮겨져 먹기식으로 '연방 탈퇴'라는 난관을 맞닥뜨렸다. 당시만 해도 경제나 사회 인프라, 교육 등 싱가포르의 여건은 지금과는 전혀 판판이었다. 하지만 알려졌던 싱가포르에서 '국부(國父)'로 일컬어지는 초대 총리 리관유(Lee Kuan Yew)가 압도적인 리더십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면서 이 보잘것없던 섬나라는 오늘날 세계적인 강소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필자는 1997년 외환위기가 발발하기 직전 여름, 싱가포르에 한 달가량 체류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 세 가지 있다. 하나는 길보장만 그릴까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매우 독특한 엘리트 공무원과 지식인층, 그다음은 '유리 벽'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뭔가 답답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보다 맛있는 음식.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높은 다문화, 다인종 국가답게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페라나칸 등의 다채롭고 풍부한 음식 콘텐츠가 발달해 있었다.

하지만 땅덩어리가 작은 싱가포르가 처음부터 이른바 MICE(Meeting · Incentive trip · Convention · Exhibition · Event) 산업의 중심지이자 관광지로 부각된 건 아니었다. 미래 성장을 위한 돌파구로 오픈 카지노를 허용하고 호텔, 컨벤션 홀, 쇼핑몰 등 각종 인프라와 그 속을 채울 콘텐츠를 갖추면서 물꼬를 튼 것이다. 그 핵심에는 이제는 싱가포르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마리나 베이 샌즈가 있다. 하늘 향해 뻗어 있는 3개의 초고층 건물 위에 배 모양의 구조물을 지붕처럼 얹은 '스카이 파크'로 유명한 독특한 외관의 복합 리조트. 필자가 싱가포르를 다시 가보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 역시 확장 시절의 추억도 있지만 이 인상적인 랜드마크를 직접 보고 싶어서이기도 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간다면 이 랜드마크와 더불어 유명세를 떨치는 한 셰프를 만나고 싶었다. 싱가포르 파인다이닝 업계의 선구자로 꼽히는 저스틴 퀘크가 바로 그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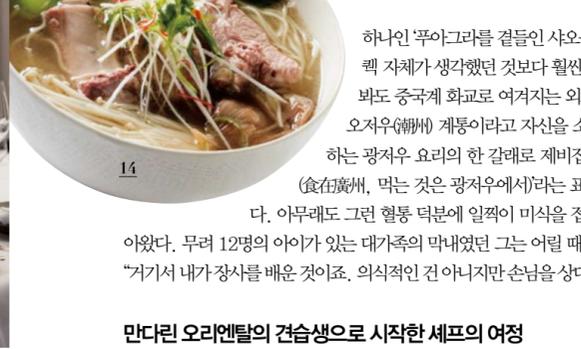
마리나 베이 샌즈를 미식으로 수놓고 있는 스타 셰프

1962년생으로 싱가포르 출신인 저스틴 퀘크는 30년 넘도록 싱가포르의 물론 방콕, 타이베이, 베이징, 상하이 등에서 활약해온 스타 셰



프다. 하지만 단순히 그 이름값 때문에 그를 만나고 싶었던 건 아니다. 저스틴 퀘크의 인연은 2012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소매인 브랜드 초창기로 방만한 호주 출장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업무로든 사적으로든 얽힐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귀국길 경유지인 시드니에서 예기치 않은 동행을 하게 됐다. 그에게는 일행이 있었지만 섯뽀 손을 내밀어준 덕분에 현지 맛집을 탐방하고 해안가의 아름다운 야경도 즐기는 아주 '영양가 있는' 하루를 보냈다. 사실 당시에는 미식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고, 그의 이름도 처음 접했지만 알고 보니 마리나 베이 샌즈 57층에 있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스카이 온(Sky on) 57'을 꾸리고 있는 싱가포르의 유명 셰프였던 것. '소탈하고 친절한 퀘크 씨'는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점차 미식 세계에 눈을 뜨면서 그의 요리도 궁금해졌다. 그로부터 6년 뒤, 마침내 싱가포르를 찾은 일이 생기면서 저스틴 퀘크를 다시금 만나게 됐다.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동안 그는 스카이 온 57을 떠나 마리나 베이 샌즈에 있는 새로운 장소에 터를 잡았다. 하나는 모던 아시안 요리를 내세운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시누아즈리(Chinoiserie)',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부담없이 싱가포르 현지식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캐주얼 레스토랑 '저스틴(Justin-Flavours of Asia)'. 시간이 훌쩍 흘러버린 탓에 서로 얼굴이 잘 기억나지도 않았지만 '스토리가 있는 미식'이라는 매개체로 인연을 이어가게 된 셈이다. 그런데 그의 대표 메뉴 중



14

하나인 '푸아그리를 곁들인 샤오롱빠오를 음미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저스틴 퀘크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스토리가 풍부한 인물임을 알게 되었다. 언뜻 봐도 중국계 화교로 여겨지는 외모의 그는, 광저우에 속하며 미식으로 유명한 차 오저우(潮州) 계통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차오저우 요리는 중국 남부 요리를 대표 하는 광저우 요리의 한 갈래로 제비집, 삭싯된 같은 메뉴가 유명하다). '쯔짜광저우(食在廣州, 먹는 것은 광저우에서)'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광저우 요리의 명칭은 대단하다. 아무래도 그런 혈통 덕분에 일찍이 미식을 접하고 자랐던 것일까? "전혀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무려 12명의 아이가 있는 대가족의 막내였던 그는 어릴 때부터 모친을 도와 과일 노점상을 꾸렸다고 한다. "거기서 내가 장사를 배운 것이죠. 의식적인 건 아니지만 손님을 상대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게 많아요."

만다린 오리엔탈의 견습생으로 시작한 셰프의 여정

저스틴 퀘크가 셰프가 된 계기는 순전히 우연이었다. 10대 후반, 군 복무를 마치고 난 뒤 그는 선원이 되고자 했다. 이 유는 단순 명료했다. "세상을 둘러보고, 여행을 하고 싶어서"였다고, 과일을 팔 때 다양한 외국인들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썩은 열망이었다. '저스틴'이라는 이름도 본명이 아니고 자주 들리던 한 손님이 붙여준 것이라고(나중에는 '저스틴'이라는 이름을 공식 등록했다). 그런데 그에게는 선원이 될 만한 토대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청소나 설거지 같은 일을 도우면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막내로 들어갔다. 기초 없이 무작정 뛰어들었지만 워낙 부지런하고 무엇이든 빨리 배우는 그의 '일 센스'와 성실한 태도 덕분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듯 선원 생활을 해가던 그는 간단히 빵을 만드는 일 등을 도우면서 요리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요리사라고 할 수는 없을 정도의 실력이었지만 주방에 있을 때면 항상 즐거웠다고, 그런 그의 잠재력을 눈여겨본 한 윗사람이 뱃사람보다는 요리를 제대로 배워보는 게 어떨지 말하라는 조언을 건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과감히 인생의 방향을 틀었다. 선원의 급여가 꽤 좋은 편이었지만 과감히 박차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섰다. 그는 일을 하면서 학원에서 정식으로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는 곳을 찾았고 싱가포르에 있는 수많은 브랜드 호텔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그런 자리는 쉽게 얻을 수 없었고 그래서 일단 한 작은 호텔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런 와중에도 그런 자원을 해줄 용의가 있는 호텔을 계속 찾았고, 운 좋게도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매니저와 면접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만다린 오리엔탈이 아직 싱가포르에 호텔을 오픈



1

2

3

4, 13, 14

5

6

7

8

9

하기 전이었어요. 대개는 바로 '안 된다'는 답을 들었는데, 만다린 오리엔탈에서는 그나마 인터뷰를 허락했던 거죠." 호텔에서는 그런 조건이라면 급여를 많이 줄 수 없다고 했지만 그는 요리를 배울 수만 있다면 급여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열의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렇게 저스틴 퀘크는 요리사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됐다. 일터든 학원 생활이든 열정적으로 임한 그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선원 생활 막판에 받았던 급여의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돈을 받았지만 그는 그보다 훨씬 더 값진 기회를 낚아채게 됐다. 우수한 성적의 견습생에게 주어지는 특전으로 해외 연수를 받게 된 것이다. 만다린 오리엔탈 방콕이 그 기회의 땅이었다. "만다린 오리엔탈 방콕은 세계 최고였어요. 이때 제 요리사 커리어가 비로소 시작된 거죠." 그곳에서 저스틴 퀘크는 그의 첫 은사라고 할 수 있는 셰프 노버트 코스트너(Norbert Kostner)를 만났다. 제자의 재능과 태도를 높이 평가한 코스트너의 열성 어린 지도로 그는 프렌처를 비롯해 다양한 요리를 접하면서 미식의 세계에 눈을 뒀고, 이후 싱가포르로 복귀했다. 이때가 1985년, 저스틴 퀘크는 불과 23세였다(한뼉 그는 만다린 오리엔탈 방콕에 자신의 이름을 건 요리를 일주일간 선보이는 셰프로 초청받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건국의 아버지' 리관유 총리의 생일 만찬을 맡다

저스틴 퀘크의 인생에는 또 다른 귀인이 있다. 프랑스 출신의 유명 셰프 베트랑 랑글레(Bertrand Langlet). 엄격하고 완벽주의를 추구했으며 창의적이기도 했던 스승 밑에서 그는 프랑스어 수업을 듣고, 요리의 다양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베트랑 랑글레는 '원조'인 프랑스에서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준 인물이기도 했다. 1991년, 저스틴은 프랑스로 떠난다. 1년에 걸쳐 파리, 런던, 남프랑스 등 여기저기에서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면서 요리 본토의 지식과 노하우를 닦는 대로 흡수했다. 돈을 받지 않고 일하기에 선원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모아왔던 돈을 다 쓰고도 모자랐다. 고되지만 값진 경험을 쌓고 귀국한 그는 잠시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마침 공식이었던 주 싱가포르 프랑스 대사관의 셰프 자리를 맡게 된다.

"당시 대사가 제 요리를 처음 맛보더니 아주 흡족해했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프랑스 요리를 배웠느냐고 물었죠." 그렇게 인기를 얻었던 중 일생일대의 '손님'을 마주치게 된다. 바로 리관유 총리였다. 원래는 프랑스 대사관 소속이라 정부 관료를 위한 요리를 할 수 없었지만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다. 바로 총리의 생일 만찬이었다. 그후로 저스틴 퀘크는 리관유 총리가 2015년 세상을 뜨기 전까지 무려 21년 동안 그의 생일 만찬을 책임졌다. 첫 만찬 메뉴를 기억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물론'이라는 게스처를 취하면서 휴대폰 사진을 보여줬다. "첫 만찬을 준비할 때 정말 신이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 떨리기도 했죠." 그는 미소를 머금은 채 회상에 잠겼다. 그의 요리를 좋아했던 리관유 총리는 중요한 만찬이 있을 때 자주 그를 불렀고, 덕분에 세계적인 인사들을 위해 요리 솜씨를 발휘할 수 있었다. 장쩌민 중국 국가수석,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모리타 아키오 스니 회장, 영화배우 조디 포스터와 주윤발 등이 그 목록에 있다. 냉철한 카리스마로 유명했던 리관유 총리지만 그에게는 따스한 면모와 의리를 지닌 사람으로 기억된다. "참 멋진(amazing) 분이었어요. 나중에 레스토랑을 열었을 때 초창했는데 기꺼이 도와주셨어요. 그분은 (멘뎀으로 시작해 프랑스까지 건너갔던) 제 인생 스토리를 알고 계셨고,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해주기도 하셨어요."

사실 저스틴 퀘크는 요즘 흔한 스타 셰프들처럼 초반부터 두드러지는 화려한 스펙이나 배경과는 거리가 먼 이력의 소유자다. 어쩌면 결코 녹록지 않았던 환경의 싱가포르를 끌어올린 리관유 총리는 그의 손맛도 당연히 마음에 들었겠지만 형로 같은 인생 여정을 꾸겼기, 그리고 낙천적으로 개척해온 '자랑스러운 싱가포르인'으로서도 그를 아꼈던 게 아닐까 싶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씩씩하게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베이징에서도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고, 맛도 있고 영양가도 있으면서 밴딩 머신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즉석 간편식을 개발해 싱가포르의 물론 일본,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곧 선보일 계획도 있다. 후시 마리나 베이 샌즈를 방문할 일이 있다면 자신의 레스토랑 두 군데(http://justinquek.com)를 들어가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글 **고성민**

사진: 김재민, 박, SY KO

eat, pray, Love

사랑을 약속하며 나누는 반지,
매일매일 시간을 확인할 때마다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계, 순백의
웨딩드레스와 환상의 짝꿍을 이룰 귀고리
등 특별한 웨딩 주얼리와 위치를 모았다.
곧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마주하게
될 커플.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Sweet Brooch
(유류터)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와 은은한 자개 꽃잎이 조화를 이루는 로즈 드 노엘 클림 미드엄 사이즈 2천8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클레타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시파이어로 눈을 표현한 티파니 인켄트 드래곤플라이 브로치 7백80만원대 **티파니**. 남녀 모두에게 사랑받는 이아스크림을 우트 넘치게 표현했다.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자개를 세팅한 불가리 불가리 절라티 4백만원대 **불가리**. 빛깔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다이아몬드로 우아하게 표현했다. 해어피스로도 연출 가능한 플루드 카르피에 브로치 3천7백만원대 **카르피에**.

이시애티 사진

Special for You

(유류터) 메종의 상징적인 모티브를 대담하게 비틀림으로 매치해 강렬한 움직임을 살린 매직 알함브라 이어링 1천5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주얼리 세팅 장인의 손으로 완성했다.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핑크 골드 브레이슬릿이 아름다운 라베르스 원 듀에토 주얼리 워치 8천5백만원 **에거 르클레르**. 자연의 신비로움이 느껴지는 공작새 2쌍 모티브의 플립 드 펄 스몰 링. 하이 로즈 컷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1백42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1천만원대 **부세본**.



Perfect for Couple

(우부타) 지름 29mm의 스틸 케이스에 11개의 다이아몬드로 인덱스를 표현하고 2시 방향 배럴에 0.0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포제션 워치 4백52만원, 18K 핑크 골드 케이스에 자석 무브먼트 534P를 탑재한 지름 38mm 케이스의 알티플라노 워치 4천1백90만원 모두 **피아제**. 지름 38mm의 핑크 골드 케이스에 리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장식한 피에르 아펠 워치 4천300만원, 배럴에 다이아몬드 두 줄을 장식한 섬세하고 시공스러운 참 워치 2천4백만원 **반클레프 아펠**. 지름 41mm 스틸 케이스에 블랙 다이얼을 매치했다. 불가리 더블 로고 장식이 특징인 불가리 불가리 워치 5백만원대, 클래식한 옛 여성 워치 복각 모델로 지름 33mm의 스틸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로 인덱스를 표현한 불가리 불가리 레이다 워치 9백만원대 모두 **불가리**.



Gentlemen's Watch

(우부타) 모노크롬 다이얼에 요일과 날짜, 달 표시 창을 디스플레이했다. 기존의 문패(조와 달리 1백22천)보다 한 번만 조정하면 되는 피프티스스 컴플리트 캘린더 워치 가격 미정 **비세콘 콘스탄틴**. 매뉴팩처 무브먼트 430MC를 장착했다. 오리지널 모델에 비해 40%나 축소된 7mm의 두께가 놀라움을 안겨주는 드라이브 드 카르피에 엑스트라 플랫 워치 1천9백만원대 **카르피에**. 지름 40.9mm의 18K 레드 골드 케이스에 악아가죽 스트랩을 매치했다. 44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포르투게저 크로노그래프 워치 2천만원 **IWC**. 자체 제작한 무브먼트 ME29.19로 구동하는 해리시 크로노메트리 듀얼 타임 워치. 현지 시간과 홈 타임을 직관적 디자인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했다. 7백44만원 **몽블랑**. 요일을 레트로그레이드 형식으로 보여주는 발레레 라지 데이트 레트로그레이드 데이 워치. 스틸 케이스는 지름 40mm로 화이트 다이얼, 악아가죽 스트랩을 매치했다. 1천9백만원대 **발랑팡**.



Romantic Flower

(우부타) 담쟁이 담글에서 영감 받아 입체적인 비데칭성을 디자인 모티브로 삼았다. 두 손가락을 감싸는 담쟁이 잎사귀의 생명력을 1백33개의 다이아몬드와 화이트 골드로 표현한 화이트 골드 더블 링 2천만원대 **부세론**. 18K 화이트 골드에 1백18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피아제 로즈 펜던트 네크리스 2천7백50만원 **피아제**. 화이트 골드에 0.67캐럿 리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4개의 꽃잎을 실제 꽃처럼 정교하게 제작한 피오레버 이어링 2천5백만원대 **불가리**.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를 매치한 7캐럿아 프레스유 이어링 2천만원대 **사넬 화인 주얼리**.



Leaf Earring

(우부타)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나뭇잎 모양을 표현한 비가젤 다이아몬드 리프 싱글 이어링 가격 미정 **다울 파인 주얼리**. 비람에 흩날리는 꽃잎을 민으로 고정된 형태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티파니 페이퍼 플라워 다이아몬드 클러스터 드롭 이어링 1천9백10만원대 **티파니**.



Cuff Links

(우부타) 각면 처리한 아게이트 인레이 장식이 돋보이는 스틸 소재 시토리얼 커피스 링크 48만원 **홍명량**. 에.델.문페이즈와 아리비아숫자 등 시계 다이얼에서 모티브를 딴 한 완성도 높은 18K 골드 커피스 링크 9백만원대 **브로이게**. 화이트 골드와 블랙 PVD를 매치해 부세론 고유의 4가지 모티브를 살린 라트로 블랙 커피스 링크 9백만원대 **부세론**.



Layering Bracelet

(오쵸부터) 파리의 상징이자 작품에서 영감 받은 그로그랭 모티브를 살린 라트로 그로그랭 밴글, 고도의 정밀한 작업을 요하는 부세론만의 금세공 기술을 사용해 동성한 볼륨감을 살렸다. 9백만원대 **부세론**. 핑크 골드에 리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를리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라지 사이즈 2천7백만원대 **반올리프 아멜**. 알파벳 T가 자닌 수직적이고 강렬한 매력을 담은 티파니 T 투 한츠드 브레이슬릿 1천1백20만원대 **티파니**. 브랜드 아이콘이자 베스트셀러인 비제루원 컬렉션의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의 브레이슬릿 1천9백만원대 **불가리**.





His Simple Ring

(우부타) 직선형의 세련된 로즈 골드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메리미 웨딩 밴드 1백만원대 **블가리**, 핑크 골드, 브라운 세라믹, 다이아몬드 세팅 버전 총 세 개 혹은 하나의 링으로 착용 가능한 트랜드한 러브 링 세 개 한 세트 7백10만원대 **까르띠에**, 18K 화이트 골드에 리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매치한 티파니 T 트루 다이아몬드 링크 링 1백70만원대 **티파니**.

Her Lovely Ring

(우부타) 백금에 세팅한 리운드 컷 다이아몬드가 눈부신 백플리 다이아몬드 링 1천7백50만원 **반클리프 아펠**, 일파렛 T를 서로 맞물리게 해 채인 형태로 만든 구조적 디자인의 18K 화이트 골드 티파니 T 트루 화이트 링 1백70만원대 **티파니**, 33개의 리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밴드와 그로그럼 밴드를 결합한 고티모 레디언트 링크 골드 웨딩 밴드 6백만원대 **부세론**.



Just Two of Us

(우부타) 풍요, 지혜, 불멸, 장수를 상징하는 백오로부터 영감 받았다. 불가리아의 장인 기술로 벨의 특징을 정교하게 표현한 로즈 골드 세르펜티 웨딩 밴드 1백만원대,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세르펜티 웨딩 밴드 6백만원대 모두 **블가리**, 18K 화이트 골드에 1백15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포제션 웨딩 링 1천9백만원, 18K 핑크 골드에 8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피아제 포제션 링 4천만원대 모두 **피아제**.



Solitaire Engagement Ring

(오른쪽 우부타 시계 방향) 매종의 노하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비즈 프래임으로 포인트를 줬다. 0.77캐럿 다이아몬드를 더한 백플리 솔리테어 링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0.77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42개의 다이아몬드가 보호하고 있는 듯한 피아제 패션 인게이지먼트 링 가격 미정 **피아제**,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플라티넘 밴드가 고려처럼 꼭 감싸고 있는 디자인의 이유로 포유 인게이지먼트 링 가격 미정 **포레트**, 유일한 곡선으로 낭만적인 파리 연인들의 사랑을 표현한 몽 드 파리 솔리테어 링 가격 미정 **부세론**, 플라티넘 밴드에 미니멀하고 건축적인 트루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티파니 T 트루 링 가격 미정 **티파니**, 플라티넘 밴드 위에 브릴리언트 컷과 리운드 컷 다이아몬드로 개럴리아 플라워 모티브를 표현한 링 가격 미정, 리운드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웨딩 밴드 링 3백만원대 모두 **사실 확인 주얼리**, 두 가닥의 정교한 플라티넘 브러시가 서로 엇갈리며 눈부신 다이아몬드 장식을 감싸 안는 인몬트로 다모레 인게이지먼트 링 가격 미정 **블가리**, 센타에 2.07캐럿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주변에는 마치 수를 놓듯 작은 다이아몬드를 곁게 패에 세팅한 **까르띠에** 데스티네 솔리테어 링 9천1백만원대 **까르띠에**, 착용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폭과 두께로 제작했다. 라벨로 컬렉션의 17캐럿 다이아몬드 솔리테어 링과 가드 링 모두 가격 미정 **타사키**.

티파니 02-547-9488 **까르띠에** 1566-7277 **반클리프 아펠** 00798-852-16123 **블가리** 02-2056-0172
부세론 02-3479-6028 **에거 르클트르** 02-6905-3998 **바세론 콘스탄틴** 02-3446-0088 **피아제** 02-540-2297
IWC 02-3440-5876 **몽블랑** 1670-4810 **블랑팡** 02-3213-2261 **사실 확인 주얼리** 080-200-2700
브레게 02-3438-6218 **디올 파인 주얼리** 02-513-0300 **프레트** 02-3479-1784 **타사키** 02-3461-5558

예단비 옷고름 포장법

예단비 포장에는 55X55cm 정도의 작은 보자기를 사용한다. 수표로 준비할 경우에는 주로 봉투에 담아 예단비로 감싼 다음 상자에 넣고, 현금으로 준비할 경우에는 봉투나 상자 없이 한지로 감싼 뒤 그대로 예단비에 넣어 포장을 하기도 한다. 예단비는 형태가 단단하게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포장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끈을 이용한 포장법이 알맞다. 준비한 예단비를 보자기로 감싼 뒤 옷고름을 묶듯 끈으로 묶으면 완성된다.



은수저 북 매듭 포장법

북 매듭은 단정하고 담백하게 연출하기 좋은 포장법이다. 매듭 부분에 꽃이나 카드 등을 꽂을 수 있어 책이나 작은 선물을 포장하기에 좋다. 매듭에 보크나 젓가락을 꽂으면 도사리 포장으로도 훌륭하다. 스카치테이프를 붙여 북 매듭 포장은 55X55cm 정도의 작은 보자기를 사용한다.



more Precious

결혼을 앞두고 평생을 함께 지낼 새 가족에게 보내는 첫 선물, 예단. 전통적 예단으로 중요하게 손꼽는 이불과 반상기, 은수저, 예단비를 더욱 기품 있고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보자기 포장법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lee yong in

전통주 나비 매듭 포장법

기쁜 일을 앞둔 선물에 술이 빠질 수 없다. 와인이나 전통주를 준비한다면 포장이 완성됐을 때 나비 한 마리가 앉아 있는 듯한 나비 매듭 포장법을 추천한다. 와인 상자나 넥타이 상자 등 주로 길쭉한 상자를 포장할 때 사용하며, 상자 없이 병만 포장할 때는 보자기 양 끝을 돌돌 말아 손잡이를 만들어도 좋다. 80X80cm 정도의 중간 크기 보자기가 적당하다.



이불과 반상기 북 매듭 포장법

부피가 큰 이불을 단단하게 묶어 전달하기 위해 꽃 모양으로 매듭을 지어 포장한다. 이불 종류와 구성에 따라 디자인한 보통 160X160cm의 커다란 보자기가 필요하다. 반상기 포장에는 80X80cm 정도의 중간 사이즈나 110X110cm 크기의 큰 보자기를 사용한다. 여러 개의 물품을 한 세트로 구성해 준비할 경우, 같은 소재의 보자기로 각각 포장하고, 포장 방법을 너무 다양하게 섞지 않는 쪽이 단정하고 단아하게 느껴진다. 진행 **박정실**(간편 예단비)



the finest Heritage

엄청난 다크호스의 등장이다. 럭셔리 패션 하우스로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중 하나이자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한 범접하기 힘든 하이 퀄리티를 자랑하는 브랜드 보테가 베네타가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함께 도쿄 긴자의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기념한 2019 프리폴 컬렉션을 공개했다. 더 크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보테가 베네타에 대한 기대는 2019년,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르다.

패션계의 빅 이슈, 보테가 베네타와 다니엘 리

클린 럭셔리의 창시자로 여겨질 정도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던 토마스 미야에가 보테가 베네타를 떠난다는 소식은 브랜드와 그를 아꼈던 모든 이에게 작지 않은 충격이었다. 굳이여 발표할 절고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다니엘 리의 등장 역시 그에 못지않은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누구나, 언젠가 그렇듯 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핫 이슈. 더구나 독보적인 콘셉트를 지니고 있으며 두터운 매니아를 형성하고 있는 보테가 베네타에게 그 기대와 우려는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그 후 한 시즌의 여백을 거쳐 공개된 다니엘 리의 보테가 베네타. 기존의 '우월한 DNA에 모던함과 대담함을 더한 첫 번째 컬렉션'에 대한 반응은 다니엘 리의 영민함과 보테가 베네타의 영리한 선택에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 12월 도쿄에서 열린 이벤트는 보테가 베네타의 이 새로운 드림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도쿄 긴자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다니엘 리의 2019 프리폴 컬렉션을 공개한 것. 이번 행사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프레스들이 참석할 가운데 단순한 런웨이를 떠나 진정한 본질에 초점을 둔 친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동양적 매력의 아시아 최대 규모, 도쿄 긴자 플래그십 스토어

새로운 플래그십 스토어는 도쿄라는 도시가 지닌 특색이 잘 드러나도록 디자인되었다. 날렵하고 세련된 구조는 도쿄의 미래적인 감성과 모던한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9백 개 이상의 매끄러운 정사각형 실버 빛깔 메탈 패널이 이루는 건물 외관은 보테가 베네타의 상징인 인터래치 아트가 떠오르게 한다. 한눈에 보테가 베네타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움도 압도적인 매력의 건물이다. 총 6개 층, 800㎡ 규모에 여성과 남성 레디투웨어, 핸드백, 가죽 소품, 여행 용 가방, 아이웨어, 신발, 향수, 주얼리, 홈 컬렉션 그리고 가구 등 다양한 제품을 폭넓게 소개한다. 내부는 빛과 기하학적 패턴을 바탕으로 환경을 조성하던 1960년대의 빛과 공간(Light and Space) 예술 사조로부터 영감을 받아 구조적인 빛의 공간을 연출했다. 화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잘 살아나는 분위기다. 접합과 주름의 효과를 내 디자인한 창문 및 외관은 햇빛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색상이 바뀌도록 했고, 희귀한 일본산 들메나무(tamo)의 독특한 나뭇결에서 영감을 받은 깔짚하고 직선적인 패턴의 천연 오크나무 바닥은 집에 들어온 것 같은 포근함과 편안함을 지어낸다. 그 외에도 일본 에도 시대 건축물에 사용되던 일본 산 슬레이트, 보테가 베네타의 시그니처인 이탈리아산 페르시아 레드 트라베르틴(travertine) 같은 다양한 인터리어 소자가 사용되었다. 디스플레이 테이블도 특별히 눈에 띄는데, 일본의 전통 수공 기법에서 영감을 받아 벌집 같은 텍스처와 미강이 독특한 해머드 오크(hammered oak)로 제작됐고, 여기에 조 폰테(Gio Ponti)의 체어, 잔프란코 프라티니(Gianfranco Frattini)가 디자인한 '세산(Sesann)' 양치 러 같은 아이코닉한 이탈리아 가구까지 배치해 단순한 패션 숍이 아닌 고급 인터리어 숍처럼 느껴질 정도다. 새로운 도전으로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 2019년 보테가 베네타. 도쿄 긴자 플래그십 스토어는 그 출발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새롭게 단장한 매장과 이를 통해 엿보는 보테가 베네타의 완대한 꿈이 더 큰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이탈리아 브랜드의 헤리티지와 보다 젊고 혁신적인 타깃이 가미된 보테가 베네타의 미래. 그 이유인으로도 보테가 베네타와 다니엘 리를 지지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



1 빛과 공간이 구조적으로 절묘하게 어우러진 보테가 베네타의 도쿄 긴자 플래그십 스토어 내부. 여성과 남성 컬렉션부터 라이프스타일 컬렉션까지 폭넓게 소개하고 있다. 2, 3 32세의 절고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다니엘 리의 2019 프리폴 컬렉션. 심플한 실루엣 속에 새삼한 디테일과 차분한 구조를 담고 있다. 4 보테가 베네타 매니아라면 한눈에 반할 수밖에 없는 인터래치 메트 모티브의 긴자 플래그십 스토어 외관. 5 수많은 매니아를 가늠할 듯한 예감. 다니엘 리의 컬렉션은 의외의 신선함으로 더욱 눈길을 끈다. 6 바퀴부터, 테이블, 진열대까지 남다른 고급스러움과 독창성을 강조한 매장 내부.

드레스 가격 미정 Zac Posen
by 아틀리에 쿠. 글러터 펌프스
1백4십만원 지미 후. 주얼리
이어링 가격 미정 주미림,
헤어 장식 가격 미정 더문라운지.

Modern

Muse

심플한 실루엣과 더욱 섬세해진 디테일의
매혹적인 2019년 웨딩드레스 컬렉션.
photographed by jung ji eum



드레스 가격 미정 Inbal
Dror by 아틀리에 쿠.
실버 오픈토 힐 가격 미정
스튜디오 와이클렌,
주얼리 초커 가격 미정 주미림,
화이트 슬더 베일 가격 미정
더문라운지.



드레스 1천8백만원대
Ines Di Santo by
헤리타르 뉴욕.



드레스 가격 미정 Alon Livne
White by 노비아 웨딩.
화이트 오픈토 힐 가격 미정
스튜디오 와이즈먼, 주얼리 드림
이어링 가격 미정 주미림.



드레스 가격 미정
Liz Martinez by
소유브라이덜, 화이트 베일
가격 미정 더관보운저.



드레스 가격 미정
Otilia Brailoiu by
소유브라이덜, 드롭 이어링
가격 미정 주미림.



드레스 가격 미정 Romona
Keveza by 노비아 웨딩,
화이트 피아스 베일
가격 미정 더란브운지.

드레스 1천만원안팎대
Alon Livne White by
헤리티지 뉴욕.

헤어 김우준
메이크업 김도현
모델 정소현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노비아 웨딩 02-514-9981
헤리티지 뉴욕 02-514-4010
이블리에 쿠 02-517-3889
소울브라이덜 02-541-7077
더란브운지 02-548-7218
스튜디오 와이즈먼 02-3449-5903
주미림 joonlim.com
지미후 02-3443-9469



believe in True Love

변치 않는 사랑과 언약의 대명사 티파니가 보다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한 컬렉션을 선보인다. 눈부신 빛과 정제된 아름다움을 동시에 지닌 '티파니 트루' 다이아몬드 웨딩 링.

창립자 찰스 루이스 티파니가 1837년 뉴욕에서 탄생시킨 티파니는 오랜 세월 전 세계 유명 인사의 러브 스토리를 장식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는 진정한 사랑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새로운 웨딩 링 티파니 트루(Tiffany True)를 출시한다.

다이아몬드 명가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주얼리 하우스답게 티파니의 웨딩 링에는 늘 특별한 요소가 있다. 그중 하나가 브랜드 고유의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구현한 눈부신 광채. 다이아몬드의 품질을 평가하는 네 가지 기준인 투명도(Clarify), 캐럿(Carat), 색상(Color), 컷(Cut) 중 오로지 인간의 눈에 의해 결정되는 유일한 요소이자 원석에 생명을 불어넣는 게 바로 '컷'이다. 커팅은 하우스가 보유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단번에 드러내며, 이 요소가 반지의 아름다움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려 1천5백 명에 이르는 다이아몬드 커팅 전문가를 보유한 티파니는 티파니 트루를 장식한 센터 스톤의 페이스(facet, 보석의 깎인 면) 노출 면적을 최대로 넓혀 빛의 대비와 분산을 극대화하며, 이를 통해 보다 밝고 화사한 빛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원석으로부터 더 많은 중량을 얻기보다 최상의 광채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 이처럼 눈부시게 단장한 다이아몬드는 고유의 티파니 세팅™ 방식으로 간결한 유선형 프롱 위에 자리 잡는다.

최상급 보석만큼이나 티파니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요소가 또 하나 있다. 바로 뉴욕의 역동적인 에너지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이다. 티파니 트루는 많은 이에게 사랑받아온 클래식한 솔리테어 웨딩 링의 계보를 잇는 동시에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것이 특징이다. 미니멀하고 건축적인 형태의 반지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이아몬드를 들어 올리는 프롱 부분에 알파벳 'T'를 형상화한 디테일이 숨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다. 이 작고 정교한 장식은 티파니 트루를 한층 모던하게 만들 뿐 아니라 타 브랜드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상징으로 작용한다. 다채로운 소재와 디자인으로 전개해 선택의 폭이

넓은 것 또한 매력적. 플래티넘 밴드에 트루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모델과 18K 골드 밴드 위에 팬시 컷 옐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모델, 두 가지 스타일로 출시하며 이와 함께 기드 링으로 연출하면 더욱 멋진 러운 티파니 T 트루 링도 선보인다. 티파니 T 트루 링은 서로 맞물린 알파벳 'T' 형태의 체인이 교차하는 형태의 밴드 링으로 날렵한 각이 살아 있는 다이아몬드의 단면을 형상화한 독특한 마감 처리와 구조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모델. 로즈 골드, 화이트 골드, 옐로 골드까지 다채로운 소재로 선보이며 밴드의 두께를 달리해 와이드 또는 내로(narrow) 모델 중 선택 가능하다. 웨딩 링과 레이어링하는 것은 물론 커플 밴드로 연출해도 좋을 듯. 이 모든 제품은 2월부터 전 세계 티파니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47-9488 **에디터 이혜미**



1 팬시 컷 옐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골드 티파니 트루 링과 트루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플래티넘 티파니 트루 링. 2 기드 링으로 연출하기 좋은 세 가지 소재의 티파니 T 트루 링.

● sponsored by TIFFANY & Co.



modern Appeal

최고 품질의 진주에 젊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더했다. 실루엣과 컬러 그리고 소재에 담은 균형과 대비는 타사키 주얼리의 키워드. 마치 철저하게 계산되어 만들어진,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건축물 같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총을 쏘는 듯 부드러운 골드 라인에 허한 진주의 컬러 대비가 아름다운 타사키 인 밸런스 아이리링 2백60만원, 진주와 다이아몬드의 상반된 개성을 미니멀하게 표현한 리파이드 리 밸런스 시그니처 아이리링 4백45만원, 완벽한 진주의 빈틈한 직선 나열이 매력적인 밸런스 아이리링 8백16만원, 밸런스 불에서 영감을 받아 태어난 시리즈로 최상급 아코야 진주를 사용한 밸런스 네오 네크리스 2백97만원. 인장감을 주는 모던한 밸런스 네오 링 1백86만원 모두 타사키 문의 02-3461-5558 **에디터 장미은**

● sponsored by TASAKI

핑크 스완 네크리스 14만5천원,
 핑크 스완 이어링 16만5천원,
 핑크 스완 브레이슬릿 16만5천원,
 러블리 크리스탈 뱅글 워치 로즈 골드
 63만원 모두 **스와로브스키**.



라이프롱 보우 이어링 18만5천원,
 라이프롱 보우 네크리스 실버
 14만5천원, 라이프롱 보우 뱅글
 18만5천원, 라이프롱 보우 링
 16만5천원, 크리스탈 라인 글램 워치
 토프 그레이 54만5천원
 모두 **스와로브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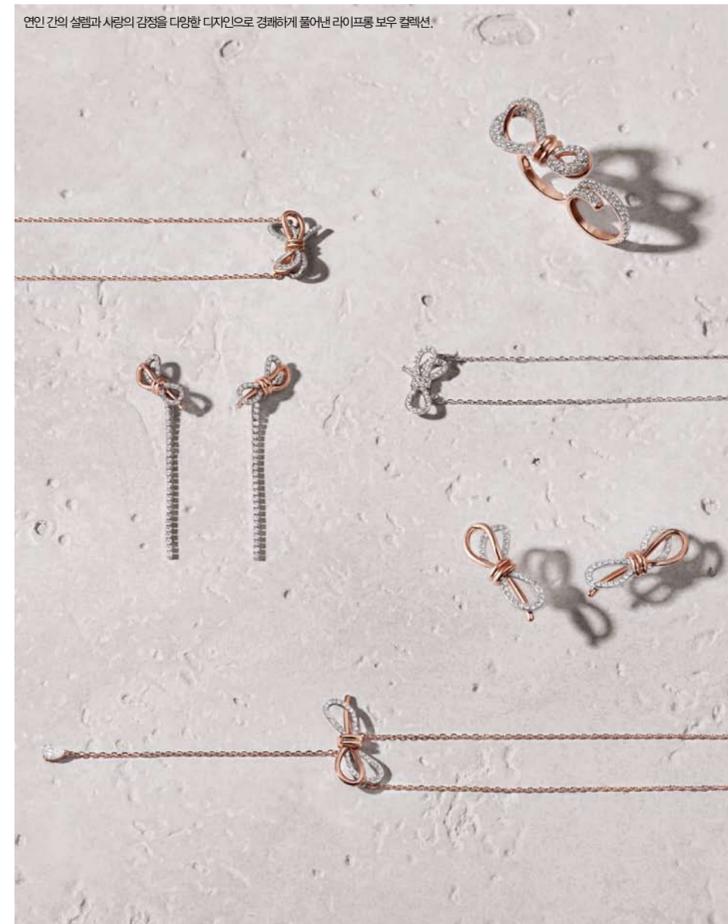
the scent of Spring

스와로브스키의 새 뮤즈가 공개되었다. 2019년 봄, 뷰파인더 앞에 선 선미가 제안하는 기대, 설렘, 로맨스 그리고 자신감을 담은 스와로브스키 컬렉션.

로맨틱한 백조의 유혹 '핑크 스완 컬렉션'
 업계에서 유일하게 28면 크리스탈 커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와로브스키는 정교하게 다듬은 크리스탈 스톤에 마법과 같은 색을 입히고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마무리해 여성의 마음을 유혹해왔다. 그중에서도 스와로브스키의 상징인 스완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주얼리는 나 이와 취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잘 어울려 꾸준히 사랑받는 아이템. 2019년에는 스완 모티브에 파스텔 톤 밀레니얼 핑크 크리스탈을 더해 로맨틱함을 극대화한 핑크 스완 컬렉션을 선보인다. 작고 앙증맞은 스완 모티브에 과감하게 적용한 핑크빛 톱크리스탈 스톤이 본연의 피부 톤보다 한 톤 더 환하고 밝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 작은 스완 펜던트가 달린 심플한 네크리스는 어떤 옷에 매치해도 무난한 기본 아이템으로 훌

륭하다. 셔츠나 블라우스의 윗단추 하나를 풀었을 때 살짝 보이도록 스타일링하거나 다른 네크리스와 레이어링해도 좋고, 네크라인이 깊게 파인 옷에 포인트로 착용해도 손색이 없다. 이어링은 꽃볼을 따라 체인이 가볍게 떨어지도록 디자인했는데 이 체인은 탈착이 가능해 드롭형, 비대칭형 또는 스티드형으로 취향에 따라, 그녀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게 착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브레이슬릿은 스와로브스키 리믹스 컬렉션과 같은 마그네틱 클로저를 사용했다. 혼자서 한 손으로 쉽게 착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리믹스 컬렉션과 연결해 초커 또는 네크리스드로 활용 가능하다. 비대칭 스타일 뱅글 디자인으로 시선을 모으는 '러블리 크리스탈 뱅글 워치'는 약 30여 개의 무빙 크리스탈이 마치 손목 위에서 가볍게 떠다니는 듯한 느낌을 줘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더욱 진가를 발휘한다.

사랑의 상징 '라이프롱 보우 컬렉션'
 반짝이는 크리스탈로 전 세계 수많은 여성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고 있는 스와로브스키는 연인 간의 사랑을 즐겁고 경쾌하게 풀어낸 라이프롱 보우 컬렉션의 새로운 제품들을 선보인다. 선물 포장을 풀 때 느끼는 첫 감정인 설렘, 그 설렘을 상징하는 리본을 모티브로 디자인했는데, 기늘고 단단한 리본에 연인 간의 사랑을 약속하는 매듭의 의미도 담았다. 로즈 골드와 로듐 플래티넘을 적용한 3D 투톤 디자인에서는 다이내믹하고 모던한 감성이 느껴진다. 올해는 Y 네크리스와 롱 네크리스, 더블 링 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는데 작년 봄 처음 선보인 라이프롱 컬렉션 제품들과 레이어링하거나 믹스 매치하면 더욱 감각적인 연출이 가능하다. 스와로브스키 워치의 아이콘이자 베스트셀러 '크리스탈린'을 가장 모던한 방식으로 해석한 '크리스탈린 글램 워치'는 수백 개의 크리스탈을 채운 다이얼이 가족 스트랩과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마치 시간이 멈춘듯 시선을 사로잡는다. 최상의 크리스탈을 정교하게 커팅하고 디자인해 완벽한 투명도를 유지하며 화려하게 빛날 수 있게 완성하는 스와로브스키의 1백23년 노하우가 느껴지는 시계다. **에디터 장미윤**



작고 심플한 스완 모티브에 핑크빛 톱크리스탈 스톤을 적용해 로맨틱한 무드를 극대화한 핑크 스완 컬렉션.

● sponsored by SWAROVSKI

샤넬 수블리마지 레쌍스 루미에르
피부결과 피부 톤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본연의 광채를 되찾아주는
화이트닝 세럼, 40ml 61만3천원.



perfect Radiance

이제 화이트닝은 그저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거나 그 수를 줄이는 단순한 메커니즘에 머물지 않는다. 피부 본연의 광채를 깨워주고, 피부결을 매끄럽게 관리하는 샤넬 수블리마지 레쌍스 루미에르는 피부 결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맑고 균일한 피부 톤으로 가꿔주는 진보한 화이트닝 스킨케어를 선사한다.
photographed by lee yong in

자연에서 찾은 화이트닝 스킨케어

겨울철, 뚝 떨어진 기온 탓에 피부는 나날이 까칠해지고 안색은 갈수록 칙칙해진다. 특히 피부 손상이 심각해졌음을 경고하는 피부 톤의 변화는 동양인에게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서양인에 비해 멜라닌 세포의 크기가 크고 수도 많기 때문이다. 이달 새롭게 선보인 샤넬 수블리마지 레쌍스 루미에르는 얼룩덜룩한 피부 톤을 개선해 광채 피부로 가꿔주는 세럼으로, 야생에서 자란 강인하고 아름다운 식물, 안틸리스의 자생력에서 스킨케어의 해답을 얻었다. 흔히 화이트닝 스킨케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얼굴

색을 하얗게 만드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화이트닝 스킨케어의 핵심은 피부 본연의 톤을 맑고 균일하게 개선해 화사하게 빛나는 피부로 가꾸는 것이다. 샤넬이 새롭게 찾아낸 안틸리스는 샤넬 연구소의 활성 성분 개발 책임자 니콜라 후자티가 수백 종의 약용 야생식물이 자라고 있는 프랑스 남부 알프스 지방에서 다양한 식물의 효능을 연구한 끝에 발견했다. 샤넬 연구소는 유해한 환경에 저항하며 자생력을 키우는 안틸리스의 능력이 주목했고, 그리스어로 '고결한 꽃'이란 의미가 있는 이 꽃이 탁월한 스킨케어

효능을 지닌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6~7월, 활짝 핀 꽃잎과 줄기, 잎사귀를 손으로 직접 수확한 뒤에 섬세한 공정을 거쳐 건조시킨 안틸리스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피부 조기 노화를 방지한다. 또한 세포 방어 메커니즘을 강화해 피부 칙칙함을 개선하며, 맑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꿔주는 것이 특징이다.

궁극의 광채 효능

피부를 위한 궁극의 광채 세럼으로 불리는 수블리마지 레쌍스 루미에르는 피부 깊이 항산화 성분을 전달해 스트레스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맑게 빛나는 피부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 자극과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거친 피부결을 매끄럽게 개선해야 한다. 야생에서 자라는 안틸리스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햇빛을 잘 받기 위해 특별한 분자가 발달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이 피부를 윤기 있고 화사하게 가꾸는 작용을 한다. 피부의 칙칙함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결점 없이 균일한 피부결로 가꿔주는 수블리마지 레쌍스 루미에르는 세포 방어력을 강화하는 안틸리스 성분과 바닐라 플레니폴리아 워터의 항산화 효과가 어우러져 피부 본연의 광채를 되찾아준다. 가볍고 산뜻한 텍스처로 바르는 순간 피부에 즉각적으로 스며들어 매끈하고 실기한 느낌으로 마무리되며 풍부한 영양분을 갖춘 시아버터와 식물성 글리세린을 함유해 한층 부드럽고 촉촉하다. 수블리마지 레쌍스 루미에르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선보이는데, 피부 각층의 밀도를 회복시켜 탄탄한 피부로 가꿔주는 에센스 수블리마지 레쌍스 폼다넨탈과 피부 재생력 강화는 물론 보습, 윤기, 탄력, 피부 톤, 모공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크림 수블리마지 라 크렘을 함께 사용하면 더욱 강력한 스킨케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문의 080-332-2700 **전통 박경실** **역원 에디터**

Synergy Effect

수블리마지 레쌍스 루미에르와 수블리마지 라 크렘을 함께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수블리마지 레쌍스 루미에르와 수블리마지 라 크렘의 효능은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합니다. 피부 방어 메커니즘에 작용해 칙칙한 피부 톤을 정돈하는 수블리마지 레쌍스 루미에르는 피부가 가진 자연스러운 광채를 살려주는 수블리마지 라 크렘의 효능을 극대화하지요. 그 결과 한층 더 화사한 광채로 빛나는 생기 있는 피부가 완성됩니다. 더불어, 피부 각층의 밀도를 회복시켜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주는 수블리마지 레쌍스 폼다넨탈을 함께 사용하면 더욱 강력한 스킨케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블리마지 레쌍스 루미에르는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사용하나요? 수블리마지 라 크렘을 바르기 전, 매일 아침과 저녁 세안을 마친 피부에 바릅니다. 손가락 끝으로 얼굴 전체와 데코르테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바르세요. 두 손으로 얼굴 중앙에서 바깥쪽을 향해 퍼 바른다는 느낌으로 이마 중앙에서 관자놀이까지, 코에서 귀까지, 입술 끝에서 턱 선까지, 그리고 턱 끝에서 귀로 올라갔다 바깥까지 다시 내려옵니다. 이렇게 마사지하듯 바르면 피부 미세 순환이 활성화되어 얼굴에 아름다운 광채가 살아납니다.



1 샤넬 수블리마지 레쌍스 폼다넨탈 피부 세포 활력을 향상시키고 피부 각층의 밀도를 회복시켜 탄력 있는 피부를 선사하는 피부 강화 에센스, 40ml 61만3천원. **2 샤넬 수블리마지 라 크렘** 피부 재생력, 보습, 윤기, 탄력, 피부 톤, 모공에 작용하여 건강한 피부로 가꿔주는 크림, 50g 49천원.

● sponsored by CHANEL

● sponsored by SISLEY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차지고 탄력이 떨어져며 자연스럽게 주름이 나타난다. 게다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유해한 환경과 개인이 지닌 생활 패턴, 습관적 행동이 주름 생성을 가속화하기도 한다. 이 같은 후천적 요인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시슬리 연구소는 지난 2016년 '시슬리아 랭테그랄 앙티 아쥬 라인'을 론칭했다. 페르시아 아카시아, 린데라 추출물, 이스트, 콩 단백질 혼합체 등의 활성 성분을 조합해 세포의 재생 주기를 단축시키는 데 효과적이고 작용이 빠른 눈에 띄는 개선 효과를 보이며 큰 반응을 얻었다. 이후 계속해서 행동 노화의 근원을 탐구하고 후생 유전학의 연구를 이어온 이들은 지난해 시슬리아 랭테그랄 앙티 아쥬 라인 컨센트레이티드 세럼을 선보인 데 이어 2019년 다시 한번 광범위한 주름 개선 전문 기술을 도입한 시슬리아 랭테그랄 앙티 아쥬 인티 링클 컨센트레이티드 세럼을 출시한다. 강력한 효과를 자랑하는 신제품, 시슬리아 랭테그랄 앙티 아쥬 인티 링클 컨센트레이티드 세럼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혁신성을 보인다. 우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젊은 피부에서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준다는 점. 잘 알려져 있듯이 콜라겐은 피부를 부드럽고 매끈하게 만들어 주름 생성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다. 시슬리는 새로운 활성 성분인 포슬린 카카오 추출물을 통해 콜라겐 생성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재생 능력을 활성화하도록 고안했다. 뿐만 아니라 세럼이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3단계에 걸쳐 주름 방지 작용을 하고, 세포의 기질(Extracellular Matrix)의 재건을 돕는다. 진피층에서 콜라겐을 생성하는 섬유아세포의 활성을 촉진하는 콩 펩타이드 추출물, 피부 재생 효과를 지닌 블루 아가베 이스트 추출물이 피부에 긍정적인 자극을 부여하고, 신화를 방지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한 흰버들잎 추출물, 타닌이 풍부한 로즈힙 추출물, 아이리스 추출물 등이 피부를 보호 및 강화한다. 임상 실험 결과 세럼을 사용한 지 2개월 후가 되자 피부가 속부터 차올라 모든 종류의 주름이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얼굴이 전체적으로 리프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최상의 주름 개선 효과를 내는 시슬리아 랭테그랄 앙티 아쥬 인티 링클 컨센트레이티드 세럼은 끈적이지 않는 산뜻한 텍스처도 특징이다. 피부에 바르는 순간 벨벳처럼 매끈하면서도 매트하게 마무리되며 리벤더와 마조람 에센셜 오일을 함유해 은은한 향을 풍긴다. 아침과 저녁 세안 후 시슬리아 에센셜 스킨케어 료션을 바른 뒤 얼굴과 목 부위에 골고루 바른면 끝. 다른 시슬리아 랭테그랄 앙티아쥬 라인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즉각적이고 빠른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문의 080-549-0216 **에디터 이혜미**



secret of Youth

노화는 모두에게 찾아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그 징후를 줄이며 속도를 늦추고자 노력하면 보다 젊고 탄력 있는 피부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해온 시슬리 연구소가 소개하는 '시슬리아 랭테그랄 앙티 아쥬 인티 링클 컨센트레이티드 세럼'. 어린 피부로 되돌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만든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시간을 되돌려주는 SISLEY

4주 만에 브라운 스폿을 줄여주는 에센스, 피부 긴장력을 회복시키는 세럼과 장벽 기능을 강화하는 영양 크림 등 지난 10년간 유효하게 빛나는 밝은 피부의 원인을 파고들었던 시슬리 연구소에서 개발한 최상의 제품들을 모았다.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후도 블랑 브라이트닝 데일리 디페인드 SPF 50-PA+++ 50ml 33만원, 후도 블랑 앰플루트 화이트닝 에센스 5mlx4 38만원, 시슬리아 캄타그릴 아이주 파밍 컨센트레이티드 세럼 30ml 53만원, 밤벳 영양 크림 50ml 22만원, 모두 시슬리, 문의 080-549-0216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는 LANCÔME

노화 개선에 효과적인 다마스쿠스 로즈를 사용한 프라마젯 스킨케어 라인 앰플루트 링콤 연구소의 기술력을 담은 제-피피 라인으로 구성된 세트, 피부 속 깊숙한 곳까지 영양을 공급해 기분을 다져준다. (우부터) 앰플루 스포트 크림 60ml 39만원대, 제-피피 더블 드림 앰플 20ml 12만원대, 앰플루 올레오 세럼 30ml 38만원대, 앰플루 아이크림 20ml 22만원대, 앰플루 로즈 80 에센스 로션 150ml 13만원 모두 링콤, 문의 080-001-9500

바디의 힐링 에너지를 담은 LA MER

반세기전, 우주 항공 물리학자가 실험 중 사고로 생긴 피부 손상을 개선하기 위해 12년간 6천여 번의 실험을 거쳐 완성한 크렘 드 라 메르를 중심으로 로션, 세럼, 아이 크림을 더해 구성된 세트, 수직적으로 채워진 청정 지역 해초 발효 원액을 활용한 마린 브로스를 핵심 성분으로 피부를 개선시키는 강력한 에너지를 각 병에 담았다. (왼쪽부터) 리프팅 컨투어 세럼 30ml 41만원대, 트리트먼트 로션 150ml 19만5천원대, 아이 컨센트레이티드 15ml 25만5천원대, 크렘 드 라 메르 60ml 39만8천원대 모두 라 메르, 문의 02-3440-2775



피부 보호와 집중 케어를 동시에 ESTÉE LAUDER

나이트 리페어 전문가 에스티 로더의 환상의 산송사, 일상생활 속에서 피로에 지친 피부를 개선해주는 제품들로 밤사이 이루어지는 자연 개선 능력을 도와 피부의 힘을 강화시킨다. (우부터) 에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리카버리 세럼 50ml 15만5천원대, 에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아이 컨센트레이티드 매트릭스 15ml 10만원대, 에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인텐시브 리카버리 앰플 60pcs 18만2천원대 모두 에스티 로더, 문의 02-3440-2772

beautiful Solution

그날만큼은 맑고 깨끗한 피부이고 싶을 듯, 에비 신부와 양가 어머니의 탄력 있고 아름다운 동안 피부를 책임져줄 스페셜 뷰티 세트 8, photographed by lee yong in

플래티늄의 기적 LA PRAIRIE

1온스를 얻기 위해 10톤의 광석이 필요하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귀중한 소재 플래티늄, 퓨어 플래티늄은 피부의 전자기적 균형을 완벽하게 유지시켜 보습과 보호는 물론 노화를 방지하고 필수영양소 흡수 능력까지 증가시킨다.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라프래리 플래티늄 레이 셀룰라 나이트 얼룩사어 20ml 1백52만3천원, 라프래리 플래티늄 레이 셀룰라 라이프 로션 115ml 82만6천원, 라프래리 셀룰라 크림 플래티늄 레이 50ml 1백52만3천원 모두 라프래리, 문의 02-511-6626



자친 피부에 활력을 DIOR

디올 하우스의 프라마젯 스킨케어 라인 프레스티지 라인에는 장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재능력을 지닌 그랑블 장미의 성분을 담았다. 성세하고 민감한 피부에 적합하며 향과 텍스처가 신뜻하고 부드러운 나이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다.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프레스티지 라미크로 펄드 로즈 50ml 38만 5천원대, 프레스티지 라 크림 50ml 47만원대, 프레스티지 로 광생프레 이온 15ml 22만5천원대 모두 디올, 문의 080-342-9500



광채 피부를 위한 CHANEL

가장 빠른 시간에 최상의 피부 상태를 만들기 위해 인텔리시스, 바닐라 플라-플로리 등 귀한 식물 재료를 배합해 놀라운 능력을 끌어올린 샤넬의 수블리미지 라인으로 구성된 세트,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얼굴에 충분한 휴식을 취 반복하는 피부를 되찾게 해준다.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수블리미지 액트레 15ml 63만8천원, 수블리미지 라 크림 드 아이 15g 24만6천원, 수블리미지 마스크 50ml 26만5천원, 수블리미지 레스스 퀴에르 40ml 61만3천원, 모두 샤넬 문의 080-332-2700 에디터 김자윤



공극의 안티에이징 GIORGIO ARMANI

조르조 아르마니, 뷰티의 럭셔리 스킨케어 라인 '크레마네라'는 축복받은 환경 속에서도 단 한 방울의 물만 있으면 되살아난다는 기적의 부활초, 레비탈리스™의 생공력을 담았다. 주름 개선 기능을 인공받은 세 개의 제품으로 구성된 이 세트는 눈에 띄는 주름을 개선하고 건강 넘치는 탄력 피부를 만들어준다. (우부터) 크레마네라 피링 플럼핑 에센스 30ml 38만원대, 크레마네라 아이비 관텔레리아 옥시던트 트리트먼트 로션 150ml 19만8천원대, 크레마네라 수프릴 리카버시 크림 50ml 49만원대 모두 조르조 아르마니, 문의 080-022-3332



editor's Pick

환절기 스킨케어부터 스프링 메이크업 제품까지. <스타일 조선일보>가 추천하는 뷰티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조르지오 아르마니 이브라니 투고 알레진자 리미티드 에디션 다양한 쿠션 팩트를 사용해왔지만 촉촉함과 커버력이 공존하는 것을 찾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이 제품만큼은 예외다. 피부에 닿는 순간 느껴지는 수분감이 놀란 데 이어 한 번의 터치로도 확연히 달라지는 커버력에 반했다. 지속력이 뛰어나니 4시간 쿠션 팩트가 갖춰야 할 모든 장점을 자라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 15g 5만9천원. 문의 080-022-3332. *by 에디터 이혜미*

세레주 루틴 파아네르 미드 #2 세계적인 뷰티 크리에이터이자 조형사인 세레주 루틴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론칭한 프레스티지 메이커업 라인 '네세르 드 보베'의 립스틱. 매끈한 텍스처와 강렬한 발색으로 좋은 반응을 얻어 기존의 #1에서 #2, #3을 추월했다. #2는 보다 깊은 레드 컬러로 세련미를 표현에 탁월하다. 2.3g 8만7천원. 문의 02-6905-3769. *by 에디터 장리은*

샤넬 비올 에센셜 스킨케어 평판적인 동양인의 얼굴에서 유래 메이크업은 아주 중요한 요소. 다만 적절한 워터에 적절한 음영을 더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문제인데 이를 해결할 독특한 아이템이 등장했다. 바로 샤넬의 비올 에센셜. 크리미한 젤 타입 스킨케어로 밝고 싶은 피부에 속속 묻지르면 자연스럽고 환한 광채가 살아난다. 8g 5만9천원. 문의 080-332-2700. *by 에디터 이혜미*

달광 인트랄 레드니스 릴리프 수딩 세럼 건조한 날씨에 꼭 필요한 고기능 수딩 세럼. 모든 스킨케어에 잘 맞지만 명간과 따끔거림이 있거나 쉽게 붉어지고 트러블이 잦은 민감성 피부에 특히 탁월하다. 독특한 향과 묽고 가벼운 텍스처도 마음에 쏙 들 듯. 30ml 8만1천원. 문의 02-3440-2706. *by 에디터 장리은*

겔랑 로생샤넬 파운데이션 SPF 20 나이가 들며 생기는 잡티를 가려줄 파운데이션은 발광을 때에 파파야하고, 지속력이 뛰어나야 하며 세디가 다량해 내 피부에 있는 잡티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97%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든 로생샤넬 파운데이션은 그런 점에서 합격이다. 여러 번 덧칠해도 답답하지 않고, 커버력은 16시간 지속되며 세이드는 무려 107가지. 사용 3주 후 피부 톤이 균일해진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뉴트리얼 계열 00N 30ml 8만7천원. 문의 080-343-950. *by 에디터 장리은*

디올 다이스 온 스테이지 라이너 워터프루프 부드럽고 유연한 펠트 브러시를 장착해 아이라인을 보다 쉽고 정교하게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 이미 선반이고 있는 14가지 컬러에 스프링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3가지 파스텔컬러 제품을 추가 출시한다. 741 메트 파스텔 오렌지 0.55ml 4만1천원. 문의 02-3480-0104. *by 에디터 이혜미*

데코레 AQ 크림 앰플루트 X 스트래스와 부족한 잠, 건조한 날씨. 다양한 유해 환경 등은 나이와 피부 타입을 불문하고 피부를 자칫 해 활력이 떨어지고 무서하게 만든다. 이 크림은 탄화 지역의 흑두 추출물 복합 성분인 옥 자고 일어난 다 음날 아침 피부차별 활력을 되찾아주는 궁극의 크림으로 자기 전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45g 58만원. 문의 080-568-3111. *by 에디터 장리은*

포뮬리 프라이메 크뤼 더 크림 예민한 피부 탓에 자극이 적은 제품만을 찾는 최근 안티에이징 라인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두 가지 피부 고민을 모두 해결할 제품은 바로 친환경 브랜드 포뮬리의 안티에이징 크림. 보르도 지역에서 자란 최상급 포도의 줄기를 구성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해 주름을 방지하고 피부 탄력을 되찾아준다. 50ml 16만7천원. 문의 02-6011-0212. *by 에디터 이혜미*

바비 브라운 텍스 아이사도우 미세한 펠 입자가 보는 각도에 따라 미묘하게 다른 컬러를 펼쳐내기 때문에 입체감 있는 눈매를 완성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다. 약한 크리미한 리퀴드 포뮬러와 파우더 피그먼트를 최상의 비율로 합쳐 가볍고 부드럽게 밀착된다. 씬 플러머 2.5g 4만6천원. 문의 02-3440-2781. *by 에디터 장리은*

나스 레지엔트 크리미 컨실러 매일 화장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피부 화장의 기초를 세우는 데 컨실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을 터. 뛰어난 밀착력과 커버력을 갖춰 매끈한 피부 톤을 완성하는 데 일조하는 나스 컨실러는 이미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이에서도 크게 사랑받는 제품. 다양한 피부 톤에 어울리도록 무려 11가지 컬러로 출시한다. 아보카도 컬러 6ml 4만원. 문의 02-6905-3747. *by 에디터 이혜미*

산타 마리아 노벨라 크리미 플루이다 타비코 토스카노 중성적인 향기를 선호하는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보디 크림. 담백함을 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배제하고 보습을 위해 바나나 베스 노트를 더해 피부에 바르는 순간 오묘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250ml 5만5천원. 문의 02-3479-6142. *by 에디터 이혜미*

달타크 디마스크 캔들 화려한 컬러의 그래픽 패키지로도 마음을 빼앗은 2019 발라미안테이 컬렉션 리미티드 에디션 캔들. 짙은 분홍색 꽃잎과 황금색 꽃송이 모양의 디마스크 로즈에서 영감을 얻은 정복하고 능동적인 정미의 향을 담았다. 190g 8만9천원. 문의 02-3479-6049. *by 에디터 이혜미*

샹젤리 안티폴루션 매트피닝 크림 미세한 자외선 차단력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피부 보호, 미세먼지 제거 등의 카워드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 안티폴루션 매트피닝 크림의 주성분은 화이트 호화오렌지 줄기세포 추출물. 공기 중 오염 물질이 피부에 끼는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성분이다. 텍스처도 부드럽워 메이크업이 편리한 향에 바나나 베스 노트를 더해 피부에 바르는 순간 오묘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40ml 13만6천원. 문의 02-517-0902. *by 에디터 장리은*



SHOWROOM

LIFESTYLE



시몬스 웨딩 프로모션 전국 시몬스 공식 매장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40만원 상당의 케노사 화이트 컬렉션 시몬스품을 증정하는 웨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몬스 공식 홈페이지(www.simmon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899-8182

샤넬 피에르 드 루미에르 드 샤넬 반짝거리는 미네랄에서 영감을 받은 메이크업 컬렉션. 골드와 핑크 시아람이 어우러진 '루미에르 40 화이트 오말 하이아티어', 핑크 또는 베이지 톤의 4가지 컬러로 구성된 '레 까르 드 옹브르 아이샤도', 코랄 핑크 컬러의 '루주 일루르 잉크 립틴트' 등으로 구성했다. 문의 080-332-2700

시슬리 시슬리아 랭데탈 양티 어췀 안티 링클 컨센트레이티드 세럼 콩 펠티드 추출물, 흰 버들잎 추출물 등 강력한 주름 개선 효과를 지닌 성분들을 함유한 안티에이징 세럼. 바르는 즉시 스며드는 가볍고 산뜻한 텍스처가 특징이다. 문의 080-549-0216

실론 카트리지 1+1 이벤트 발라미안테이를 맞아 실론 공식 홈페이지(www.silkn.co.kr)를 통해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2주간 카트리지 1+1 이벤트를 진행한다. 메이크업 미러와 미러 루미, 다이아몬드 프레스티지 타이팅 마스크 등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같은 제품 1개를 추가로 증정한다. 문의 080-246-1234

랑콤 2019 스프링 컬렉션 포근한 봄날 오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파리자현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은 컬렉션. 랑콤 이나셀 모양의 파우더 입자를 담은 '까페 보네르 블러셔', 10가지 컬러로 구성된 '까페 보네르 아이 팔레트', 아이·립·치크 모두 사용 가능한 '모노크로매틱 블러셔'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80-001-9500



스와로브스키 새로운 뮤즈 '선미' 선정을 한 해 스와로브스키를 대표하는 얼굴로 활동할 가수 선미와 광고 캠페인을 촬영했다. 선미가 착용한 신제품 '핑크 스와 컬렉션'은 스와로브스키 온라인 스토어(www.swarovski.com) 및 전국 스와로브스키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1522-9065

타사키 밸런스 아이코닉 펜던트 발라미안테이를 맞아 소재 자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모던한 밸런스 아이코닉 펜던트를 추천한다. 18K 옐로 골드 모티프에 지름 7.5mm 아코아 진주를 일렬로 세웠다. 문의 02-3461-5558

빈클리프 아벨 럭키 에니얼™ 클립 컬렉션 고양이, 사자, 발사, 토끼 등 97가지에 이르는 동물 모티프 클립을 출시한다. 머더보필, 오닉스, 카



볼가리 코리아 익스클루시브 루체아 워치 감을 얻은 팜 스타일 디자인과 혁신적 워치 브랜드를 대표하는 컬렉션 중 하나인 루체아 워치의 코리아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출시한다. 둥근 헤일로 모티브를 형상화한 볼륨 있는 케이스와 기묘세 다이얼이 어우러져 우아한 느낌을 준다. 지름 28mm의 스틸 케이스를 얻은 팜 스타일 디자인과 혁신적 워치 메이킹 기술이 어우러진 '봉봉 컬렉션'을 2019 S/H에서 공개했다. 캔디, 페이스트리, 프루트 등 총 10가지에 이르는 모델을 각각 30점 한정 출시한다. 문의 02-2230-1288

JEWEL & WATCH



아이그너 스페셜 에디션 시빌 백 2019 S/S 시즌을 맞아 특별한 시빌 백을 선보인다. 컬러풀하고 입체적인 프린트가 눈에 띄는 레터라, 블랙 & 화이트 각자 무늬 프린트가 멋스러운 '스카치', 아이코닉한 말 모티프 장식을 다한 '까발로' 총 3가지 모델로 구성했다. 탈착 가능한 스트랩을 더해 실용도를 높였다. 문의 02-3447-7701

펜디 2019 S/S 바게트 백 기존 모델을 새로 큰 크기로 재해석한 오버사이즈와 미니사이즈 바게트 백을 출시한다. 전면에 FF로고를 양각으로 새겨 넣은 디자인이 특징으로 파스텔, 블랙, 화이트 등 다채로운 버전으로 만날 수 있다. 문의 02-2056-9023

에코 ST.1 앰슬레저 룩에서



영감을 얻은 하이브리드 슈즈 'ST.1'을 소개한다. 천연 가죽으로 만들어 통기성이 좋은 안쪽에 쿠션감이 뛰어난 러버솔을 적용해 편안하다. 블랙과 그레이 컬러로 출시한다. 문의 031-628-4800



FASHION

BEAUTY



BVLGARI
ROMA

FIORER
BVLGARI.COM